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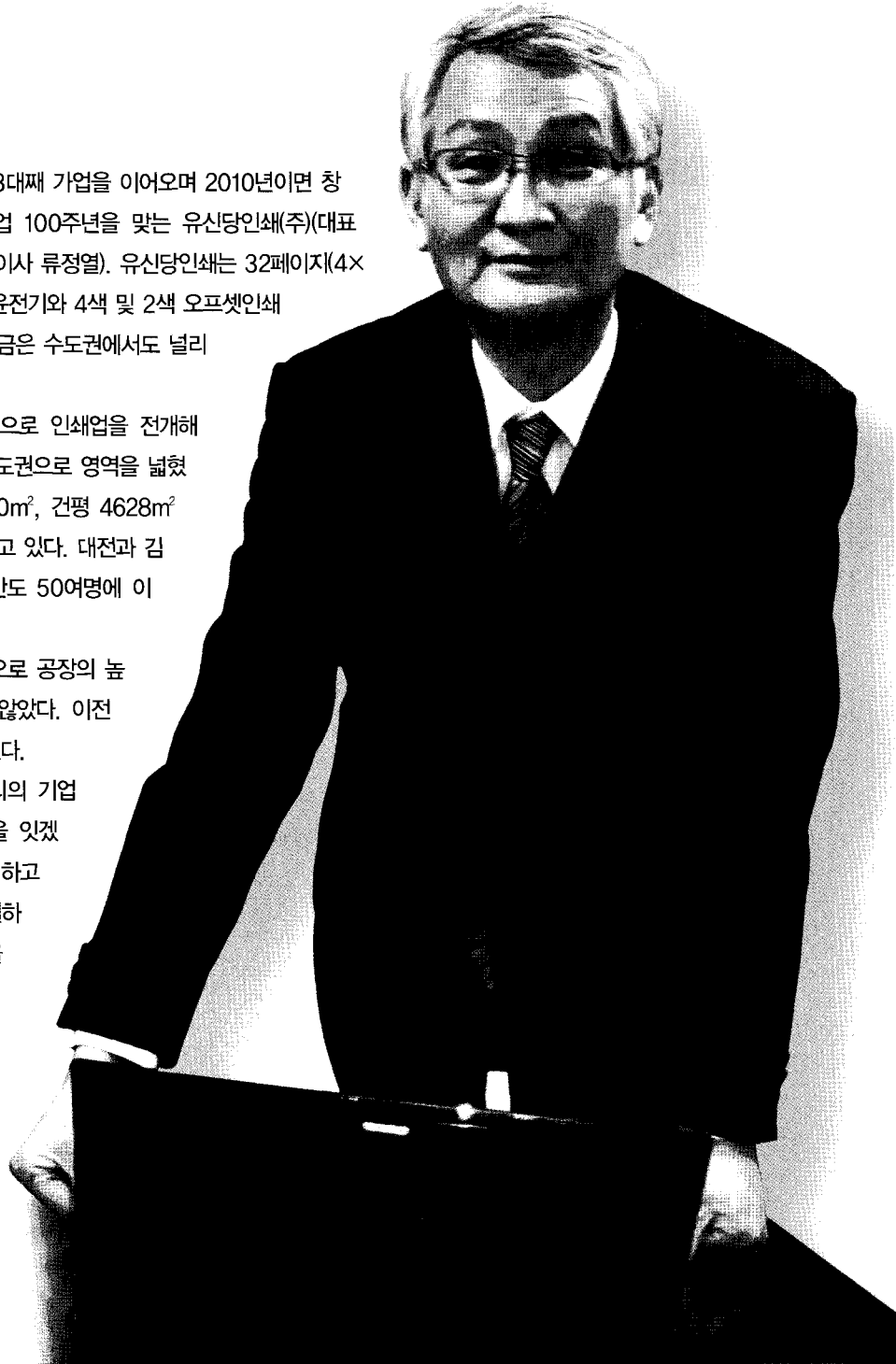
3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2010년이면 창
업 100주년을 맞는 유신당인쇄(주)(대표
이사 류정열). 유신당인쇄는 32페이지(4X

6) 합지인쇄가 가능한 윤전기를 비롯해 6대의 윤전기와 4색 및 2색 오프셋인쇄
기를 갖춘 초대형 인쇄사로 대전에서 출발해 지금은 수도권에서도 널리
알려진 회사.

1910년 설립된 동사는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인쇄업을 전개해
오다가 2001년 경기도 일산에 공장을 신설, 수도권으로 영역을 넓혔
고 최근에는 김포시 양촌산업단지에 대지 5520m², 건평 4628m²
규모의 공장을 신축 이전해 또다른 비상을 꿈꾸고 있다. 대전과 김
포양촌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만도 50여명에 이
른다.

양촌산업단지 내의 공장은 4대를 잇겠다는 각오로 공장의 높
이에서부터 외벽 인테리어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전
과 신축에 따른 예산만도 100억 원을 훨씬 넘겼다.

“사실 3대째 가업을 잇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기업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 아들이 가업을 잇겠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학교를 마치면 경험을 쌓고 이곳에서 일하
게 될 것입니다.” 류정열 사장은 아들이 가업을
잇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든든하고 인쇄문
화에 대한 애착이 새롭다고 말한다.



창립 100주년 앞둔 유신당인쇄(주) 김포시 양촌산업단지에 새 등지

32P_(4×6) 합지인쇄 가능한 윤전기 가동

3대째 가업 이어온 우리나라 最古의 인쇄사

류 사장이 인쇄와 인연을 맺은 건 필연적이었던 것 같다고 회고한다. 유신당인쇄는 1910년 국권피탈(國權被奪) 6개월여 전 약관 20세의 청년 류석중이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9평 규모로 설립한 '일도당'이 효시다. 일도당은 대전지역 인쇄사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류석중은 한화에 능통한데다 명필로 지역에서는 이름 꽤나 날리던 인물이었다. 성냥갑 위에도 천자문을 쓰고, 쌀알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새길 정도였다. 바로 이 때문에 그가 창업 아이템으로 인쇄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붓으로 일일이 써서 목각으로 찍어내는 것이 인쇄의 전부였던 시대였고,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였던지라 그가 가진 문화적 자산은 인쇄사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국권을 일제에 찬탈당하고 10여년이 흐른 1920년 5월, 일도당은 은행동 52-3번지로 이전했다. 이때 상호도 '유천당'으로 바뀌었다. 얼마 후 유천당은 은행동 9-21번지로 다시 한번 확장 이전하면서 '명필 인쇄사'의 명성을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류석중은 슬하에 3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부친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러나 만주로 건너갔다 한국전쟁이 터

지면서 영영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장남 대신 차남 류성춘과 삼남 류성은이 1938년 3월 가업을 이었는데, 류성은은 장남이 물려받아 사업을 영위하다 1980년대 후반에 전업하였고 류성춘과 그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인쇄업을 계승하고 있다. 류성춘은 1945년 8월 부친이 처음으로 일도당을 개업했던 은행동 55-12번지로 이전하면서 상호도 일제의 잔재를 훌훌 털어버리듯 '성공당'으로 바꿨다. 이 시기에는 목판인쇄와 함께 아연판에 글씨를 써서 인쇄하는 석판인쇄가 병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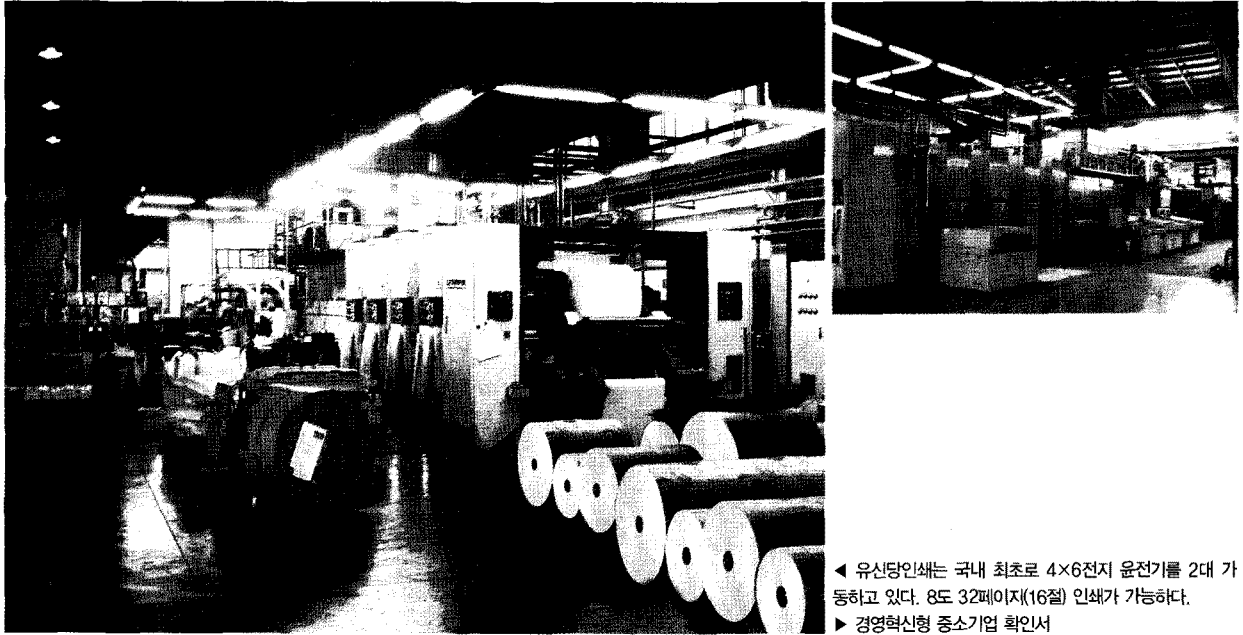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7년 1월 은행동 9-5번지로 자리를 옮긴 성공당은 상호를 '유신당'으로 개칭하고, 그 이듬해 중구 대흥동 494-7번지로 재 이전한다.

1962년 류성춘의 건강이 악화돼 그 아내인 오죽상(현 대표의 모친)이 3대 대표자로 경영 일선에 나섰다. 오죽상은 사업체를 맡으면서 특유의 여장부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유신당인쇄의 맥을 잇게 한 일등공신은 '위대한 어머니의 힘'을 보여 준 오죽상이었다.

오죽상은 1974년 3월 당시로서는 엄청난 가격이었던 오프셋인쇄기를 지역 최초로 들여오고 상호도 '유신당오프셋인쇄사'로 바꿨다. 현대식 인쇄를 시작하면서 유신당은 이제 중부권 최대 규모의 인쇄사로 자리매김했다. 해마다 막대한 규모

양촌산업단지내의 신공장 및 연구소





◀ 유신당인쇄는 국내 최초로 4×6인치 운전기를 2대 가 동하고 있다. 8도 32페이지(16절) 인쇄가 가능하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의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현 류정열 대표의 배짱은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다.

1977년 8월 유신당의 가업은 류성춘-오죽상의 차남인 류대열이 이어 4년간을 운영하였는데, 위(胃)의 3분의 1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고 건강 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생인 현 류정열 대표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물려주는 결단을 하여 가업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류정열 사장은 1991년 4월 '유신당인쇄'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전 중촌동 99-1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기업 규모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1986년부터 지방업체 최초로 통장제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장에다 금융권 전산통장, 유가증권 발행, 지로용지 인쇄 등 틈새시장을 개척한 성과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1991년 2색 오프셋인쇄기, 1992년 컴퓨터재단기, 1993년 4색 오프셋인쇄기, 1996년 드럼스캐너·분판출력기·매킨토시 전자출판시스템, 1999년 운전1호기 등의 설비를 갖춰 나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류정열 대표는 2000년 상호를 유신당인쇄(주)로 법인화하고, 2001년 운전2호기를 도입해 신탄진공장을 설립했다.

2001년에는 경기도 일산에 제3운전인쇄공장을 설립, 국내 최초 양면 10색 별색운전기 2대를 설치해 운전인쇄의 품질을 한 차원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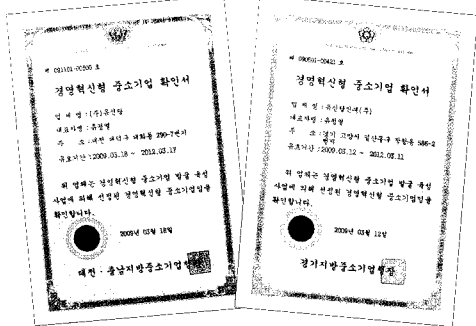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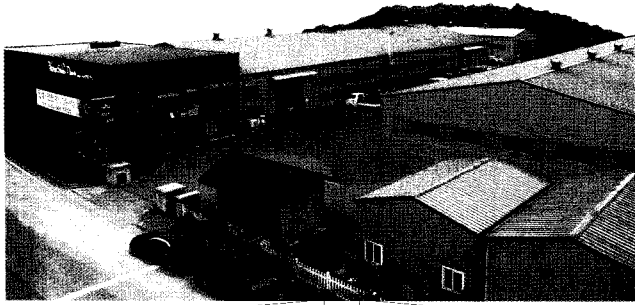
은행 구조조정으로 위기 맞기도

이런 류정열 사장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가장 큰 거래처였던 충청은행을 비롯해 중앙투자신탁, 대전생명 등이 모두 매각된 것이다. 게다가 대전 및 충남·북 상호신용금고 35개소 중 3개만 남기고 모두 사라져 버렸고, 대전·충남권 신탁 130개소 중 80개로 거래선이 대폭 축소됐다. 금융권으로 거래선을 특화한 것이 발전의 동력이었는데 IMF와 함께 불어 닥친 금융권 구조조정이 오히려 기업의 대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협으로 되돌아온 셈이 됐다.

그러나 관공서 등 거래처 다변화와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 유신당인쇄는 3대가 그 맥을 잇는 지역의 자랑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다. 과감한 설비투자는 유신당인쇄를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전단인쇄 수주 선두 인쇄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충청권을 비롯한 수도권의 백화점과 홈플러스 등이 유신당인쇄의 주거래처다.

유신당인쇄(주)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었던 것에는 류명열 회장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류 사장의 큰 형님으로 코오롱그룹 CEO를 역임한 류 회장은 경영의 기법을 전수함은 물론, 안정적인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고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등 견실한 영업기반을 마련하여 유신당인쇄(주)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올 매출은 전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110억 정도 예상합



제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

가격보다는 품질·생산성으로 경쟁

“윤전인쇄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 관련 업체들이 모두 울상입니다. 모두가 피해자지요. 자유경쟁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요즘엔 상 도리마저 저버리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빚어져요. 가격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품질 및 생산성입니다. 오프셋과 다른없는 품질과 첨단 장비와 전문인력을 통한 생산성을 주 무기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전기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옵션을 붙였습니다.”

류 사장은 “매출 1위 기업이라는 소리보다 품질과 생산성에서 1위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사로서의 자부심과 인쇄문화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다.

유신당인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촌 공장 내에 부설 인쇄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의 구성원은 아주 독특하다. 기계엔지니어링업체 대표, 전기엔지니어링업체 대표, 용지생산업체 책임연구원, 잉크생산업체 책임연구원, 약품업체 대표, 인쇄소모품업체 대표, CTP관련업체 대표, 유신당인쇄(주)대표, 유신당인쇄(주) 공장장이 주축. 이들은 매월 한차례씩 모여 인쇄기술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유신당인쇄에서 실험 인쇄를 실시한다. 목적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매년 연구소에 5천만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전력할 계획이라는 류 사장은 앞으로 출판과 인쇄유통 등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생각이란다.

한편 양촌산업단지에는 윤전업체를 중심으로 9개사가 입주 예정(현재 5개사 입주)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가동되는 윤전기만 26대에 이를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최대의 윤전인쇄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유창준 국장 chang@print.or.kr

니다. 내년엔 1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인쇄사의 매출은 임가공이 대부분이어서 매출총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매출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류 사장이지만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는 과감하고 신속하다. 유신당인쇄가 가동 중인 윤전기에 특수한 옵션들이 많다. 자동핀트맞춤장치, 지분제거장치, 소프트링장치, 품질검사장치, 가슴장치 등이 바로 그것. 자동핀트맞춤장치는 손지을 절감에 획기적인 장치이며, 최상의 인쇄물 생산과 정확한 색상 재현이 가능하다. 지분제거장치는 저급용지도 원활한 인쇄가 가능하며 인쇄물 품질관리에 혁신적인 장치이다. 소프트링장치는 접지 부분이 울거나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책의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 품질검사장치는 높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색상불량, 잉크오염, 핀트 불량, 용지불량 등을 검사하여 자동 추출한다. 가슴장치는 드라이 통과 후 생기는 주름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용지의 가로결과 세로결과 관계없이 제책이 용이하고 정전기 감소로 인쇄 및

